



2022년 정신건강관련 예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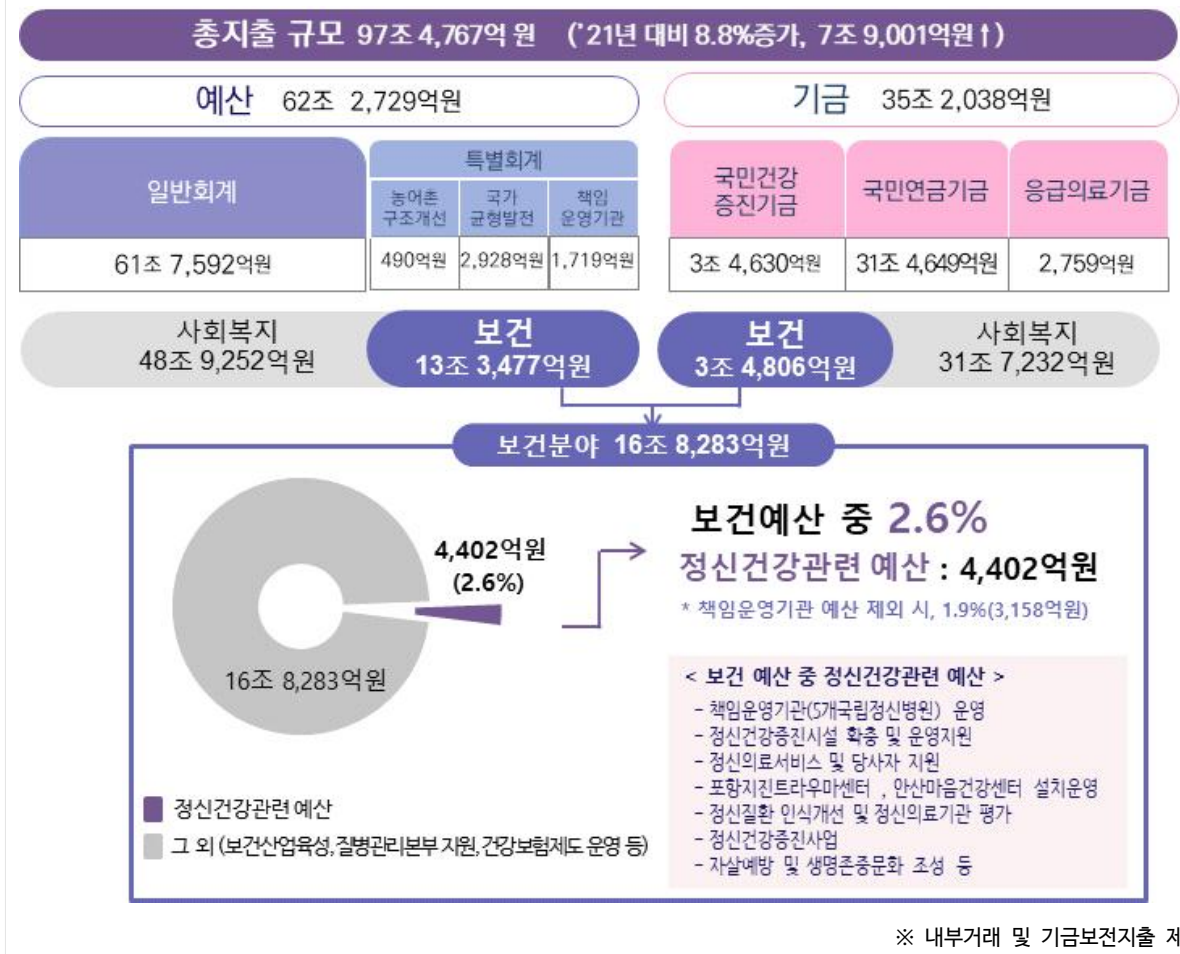
보건예산 중 정신건강복지예산 비중 2.6%

보건복지부
예산체계와
정신건강재원

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예산(일반회계, 특별회계)과 기금(국민건강증진기금, 국민연금기금, 응급의료기금)으로 구분됨. 예산 내 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2021년 본예산(89.6조원) 대비 7조 9,001억원(8.8%) 증가한 97조 4,767억원이며, 그 중 “예산”은 ’21년 본예산 대비 6조 3,694억원(11.4%) 증가한 62조 2,729억원, “기금”은 ’21년 당초 대비 1조 5,307억원(4.5%) 증가한 35조 2,038억원임.

[2021년 보건복지부 소관 지출예산]

· 자료원 :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(보건복지부), 상세재정통계DB(기획재정부)



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「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」와 기획재정부의 상세 재정통계DB 및 「22년 정신건강정책관 예산 현황」(보건복지부 내부자료)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소관 정신건강 관련 예산 현황을 파악함.

2022년 정신건강관련 예산은 4,402억원으로, 이는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뿐만 아니라, 특별회계 내 책임운영기관의 5개 국립정신병원 예산을 포함한 것임.

정신건강관련 예산 4,402억원은 예산(2,865억원, 65.1%)과 기금(1,537억원, 34.9%)으로 구분됨.

- 2,865억원의 예산은 일반회계 1,620억원(36.8%)과 특별회계 1,245억원(28.3%)으로 구분될 수 있음.
- 1,620억원 일반회계 중 「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」은 전년대비 119억원이 증가한 1,03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.
 - 「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」 내 「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」(1,031.7억원) 역시 세부사업 중 가장 큰 비중임.
 - 「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」은 전년대비 61억원 증가한 149억원임.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질환자의 응급병상 확보 등을 위하여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8개소를 지정·운영하는 「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」(23억원)이 순증되었음. 이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의사간호사보안인력 인건비 및 병상 운영비, 리모델링 비용 지원에 관련한 예산으로 지방비(50%) 합산시 46억원 규모임. 또한, 「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」(43억원)이 사회복지일반에서 정신건강정책관 소관예산으로 편입되어 순증함. 「당사자 가족 지원」(19억원, 전년대비 16억원↑)이 크게 증가한 반면, 「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」(26억원, 전년대비 9억원↓) 및 「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」(17억원, 전년대비 25억원↓)은 크게 감소함.
 - 「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」은 전년대비 16억원 증가한 115억원임. 정신의료기관의 환경개선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「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」(13억원)이 순증하였으며, 지방비(50%) 합산시 20개소의 정신의료기관에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. 한편, 「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」(74억원, 전년대비 50억원↑)은 크게 증가한 반면, 「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」(28억원, 전년대비 21억원↓)은 감소하고, 「정신요양시설 감염관리 환경개선」(30억원, 순감) 및 「국립정신병원 격리병실 구축」(28억원, 순감)은 순감함.
 - 「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·운영」(47억원, 전년대비 30억원↑) 및 「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」(163억원, 전년대비 43억원↑)은 증가함.
 - 「정신건강 문제해결 R&D」(62억원)의 경우 순감하였으나, 「자폐혼합형디지털 치료제개발(R&D)」(31억원) 및 「정신건강연구개발사업(R&D)」(62억원)*이 순증하였음. 또한, 「고독사예방관리체계 구축」(10억원)이 신규사업으로 순증함으로써 돌봄 취약계층인 1인가구의 고독사예방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.
 - 그 외에,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응급진료·입원 가능 정보 등을 실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/ISP** 예산 1억원, 「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정신의료기관 평가」 9억원 등으로 구성됨.
 - * 포스트코로나 정신건강 기술개발(37억원), 정신질환 치료친화적 기술개발(25억원)
 - ** Business Process Re-engineering / Information System Strategic Planning
- 1,245억원 특별회계는 「국립정신건강센터」(456억원, 전년대비 49억원↑), 「국립나주병원」(234억원, 전년대비 20억원↑), 「국립부곡병원」(216억원, 전년대비 15억원↑), 「국립공주병원」(176억원, 전년대비 13억원↑), 「국립춘천병원」(163억원, 전년대비 12억원↑)으로 구성됨.
-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정신건강관련 예산은 1,297억원임.
 - 「정신건강증진사업」은 1,086억원으로 전년대비 167억원 증가하였고,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」 역시 451억원으로 전년대비 56억원 증가함. 「정신건강증진사업」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「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」(664억원)으로 전년도 대비 71억원이 증액되었으며, 전년대비 87억원 증액된 「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」(291억원) 순임. 그 외에 「정신건강증진사업」은 「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」(72억원), 「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」(22억원) 등으로 구성됨.

-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」 내 비중은 전년대비 13억 감소하였으나 「자살고위험군 발굴지원」(167억원), 「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센터 지원」(144억원, 전년대비 27억원↑), 「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운영」(68억원, 전년대비 64억원↑), 「자살예방 상담전화 운영」(45억원, 전년대비 2억원↓), 「자살예방교육 및 홍보 활성화」(28억원, 전년대비 20억원↓) 순임.

올해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센터 정신건강·자살예방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음. 특히, 지역 정신건강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항목이 증가하였음.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,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위기 개입 체계 등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음.

향후 정신건강정책 발전을 위해서는 보건예산 대비 정신보건예산 비중 5%로 확대 필요함. 이를 위해 정책수혜대상의 인구구조, 정신건강문제의 특성 등에 따른 근거중심의 체계적인 자원 확보 계획과 정신건강문제의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.

NMHC 동향

vol.1; 2018. 3	조례로 보는 정신건강
vol.2; 2018. 5	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
vol.3; 2018. 9	세계 정신건강의 날 (WMHDAY)
vol.4; 2018. 10	한국인의 정신질환 질병부담
vol.5; 2019. 1	2019년 정신건강복지관련 재원분석 (중앙부처)
vol.6; 2019. 1	[칼럼] 정신장애는 정말 있는가?
vol.7; 2019. 2	[칼럼] 정신과 진단을 하면서 견여해지는 이유
vol.8; 2019. 3	정신건강통합지수로 보는 우리나라 정신건강
vol.9; 2019. 4	정신장애인의 자살
vol.10; 2019. 6	한눈에 보는 국외 정신건강 미디어 가이드라인
vol.11; 2019. 8	정신장애인의 건강
vol.12; 2019. 9	정신재활시설 현황
vol.13; 2019. 10	정신건강분야 인력 현황
vol.14; 2019. 11	정신질환의 사회경제적비용
vol.15; 2020. 2	2020년 정신건강복지관련 예산(중앙부처)
vol.16; 2020.4	중증정신질환자의 규모 및 초발환자 의료이용현황
vol.17; 2020. 5	정신장애인의 고용현황
vol.18; 2020. 6	UN에서 말하는 코로나19와 정신건강
vol.19; 2020. 8	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정신질환 진료현황
vol.20; 2020. 10	시도별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예산 현황
vol.21; 2020. 12	정신장애인의 경제상태
vol.22; 2021. 2	정신장애인의 소득보장 수준
vol.23; 2021. 3	2021년 정신건강복지관련 예산(중앙부처)
vol.24; 2021. 7	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정신질환 진료현황
vol.25; 2021. 11	정신질환과 사망
vol.26; 2022. 2	2022년 정신건강 관련 예산

※ 정신건강동향 활용인용 시 반드시 출처표기 바랍니다.